

전주시, 난개발 억제로 도심열섬 해결

개발 과정 사전예측 강화 보완사업 중점 개발 방식으로 전환... 폭염·열섬 저감기법 의무적 적용

전주시가 도심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난개발 억제 등 강력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전 도시개발의 제도적 심의를 강화하고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친환경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열섬현상에 대한 후속 대응 보다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전예측을 강화하고 보완사업을 중점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난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행정위주의 녹지정책과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은 부지문제와 효과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인공포장에 대한 절감과 생태형으로의 전환 등 복사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도입하고 도시계획 정책에 폭염·열섬 저감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개발 전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해 대형 건축물의 신축시 건물이 들어선 후의 바람 통로확보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바람길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배열하는 등 열섬의 사전평가에 근거하여 설계하도록 조례 및 절차 등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물 잔여 공간을 시멘트와 아스콘으로 인공 포장해 복사열 흡수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대지의 일점면적에 빗물을 흡수해 지면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할 생태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자동차 운행시 인공배열이 적고 무소음·무배출 차량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차량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시민공유형·직장인공유형 카 셰어링 협동조합 설



바다로 향하는 점박이물범 '복돌이'

지난 2011년 제주에서 구조돼 치료와 야생적응훈련을 마친 점박이물범 '복돌이'가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에서 방류되고 있다. 복돌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백령도는 국내 제1의 점박이물범 서식지다.

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주차장이 아스콘과 콘크리트 등으로 인공 포장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잔디 블록, 투수포장 등 생태피복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규제화하고, 기존 주차장도 생태피복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도심 온도가 지역적 여건에 따라 불균등한 현상을 보임에 따라 도심의 지역적 열섬 분석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측정망 20개소를 설치해 기온, 풍향, 풍속, 습도 등 기상자료를 축적한 후 장기적인 개선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섬효과를 저감시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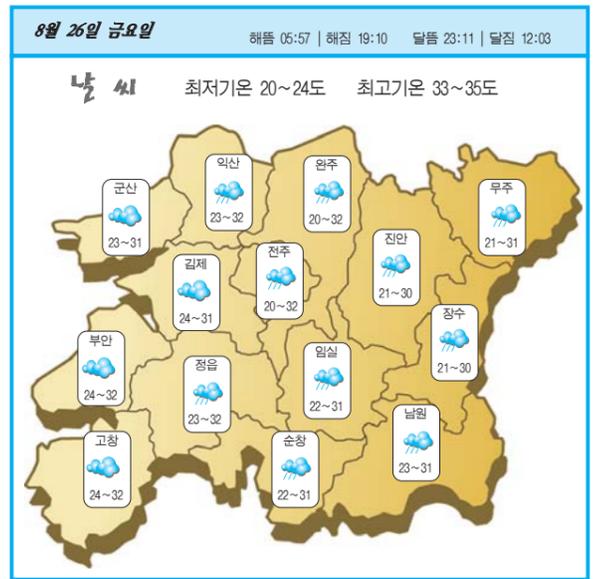
위해 친환경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에너지 자립도시를 이루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인 3040' 사업을 시행하고, 건물육상 및 외벽의 차열로 시공으로 복사열을 차단하는 쿨루프 사업과 도심 노면을 살수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심열섬 완화를 위해 그린웨이, 동네숲,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도시숲 및 녹지조성 사업과 LID(저영향개발) 그린 빗물 인프라사업, 노송천 복원사업, 빗물저금통 설치, 중앙시장 물림포그 운영 등 친수

공간 조성사업, 태양광에너지 교체,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도심 열섬 저감을 위한 전주시의 추진방향은 시의 핵심정책인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과 맞닿아 있다"며 "여름철 개문 냉방 영업과 같이 나타나 좁아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옥상에 꽃, 나무 하나 심기'와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적극적 시민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한국서양사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우리나라 세계사 교육의 현황과 방향을 제시해 줄 중요한 학술대회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한국서양사학회 2016 하계 학술대회가 오늘 오전 9시 전북대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한국의 세계사 교육과 교과서'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 새로운 세계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세계사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금껏 세계사 교과서 개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알리기 위해 관련 분야 학자들이 모여 처음 시도하는 학술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지닌다. 서양의 세계사 교육의 현황, 교과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발제하고 비판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우리 세계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강성호 한국서양사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초·중등학교 세계사 교육의 현실과 교과서와 관련된 주요 쟁점 등 문제의식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세계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서양사학회의 이론적, 경험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예수병원 서남대 정상화 추진 책임자로" 기독교연합회, 탄원서 제출

"1년 이상 약속 이행 못하는 명지병원 기대할 수 없다"

전북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5일 예수병원을 서남대 정상화 추진자로 선정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전북에 세워졌던 의대를 비롯한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폐지 및 타 지역 이전은 대학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명지병원에겐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수병원은 최근 심평원 평

가에서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대다수 서남대 구성원과 지역 정치권 및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예수병원을 서남대 정상화 추진 책임자로 선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기독교연합회는 최근 예수병원의 서남대 정상화 추진을 위한 임원회를 갖고 ▲긴급대책위원회 구성 ▲교육부에 탄원서 제출 ▲성명서 발표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고민형 기자

전주동물원, 브랜드 이미지 나타낼 수 있는 BI 개발

전주시가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BI(Brand Identity) 개발에 나선다.

이번 BI 개발은 전주동물원을 전주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동물원 브랜드로 키워 나가기 위한 것으로, 서울의 'SEOUL ZOO',

대전의 'O WORLD', 부산의 'THE PARK' 등과 같이 전주동물원하면 떠오르는 핵심 이미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주의 대표동물인 수달을 캐릭터로 해 전주동물원만의 색깔을 담을 수 있고, 시민들과 널리 소통하고 어린이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로 BI를 개발해 전주동물원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응용시스템 개발해 동물원의 각종문서 등에 널리 활용하는 한편, 상징조형물과 관람로, 안내시설물, 동물해설판, 단체복 제작, 캐릭터 상품화 등에 폭넓게 활용해 종합마케팅을 추

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동물원 BI 개발은 앞으로 4개월간의 본격적인 용역작업을 거치며, 용역과정에서 자문위원과 시민, 행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동물원은 올해 사자·호랑이 사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어 내년에는 늑대 사, 곰 사 신축을 통해 관람객과 동물들과의 교감의 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IMSIL-GUN 임실군

세심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4-4611, 063-640-2475
- http://smhu.imsil.go.kr

성수산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2-9456~7
- http://www.sunsusan.co.kr

예약은 필수!
임실에서 힐링하세요 ~